

# 수색팀 40여명 미수습자 찾기 일일이 육안 확인

## “국민께 감사 9명 돌아올 때까지 지켜봐달라”

### 미수습자 가족 감사 인사

세월호가 물로 올라 온 9일 이후 미수습자 가족들이 “국민 여러분 성원으로 세월호가 물으로 올라왔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미수습자 단원고 조은화양의 아버지 조남성(54)씨와 어머니 이금희(49)씨, 단원고 허다운양의 아버지 허종환(53)씨와 어머니 박은미(47)씨, 동생과 조카가 함께 올라오길 기다리는 권오복(61)씨,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의 아내 유백영(54)씨는 이날 오후 목포시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가족들은 “제주도에 가야 할 배가 국민의 눈물로 뒤로하고 목포시항으로 올라왔다. 배 안에 9명이 아직도 있다. 저희 가족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지막 미수습자를 찾는 날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미수습자 수습이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지만 작업자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면서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돌아가신 잠수사 분들, (현장 지원을 마친 뒤) 소방헬기를 타고 돌아가다 추락해 숨진 분들,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더는 세월호로 인해 다치거나 슬픈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목포=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풀려난지 10분만에 만취 행패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지구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한 만취 30대가 철창 행.

○-9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조모(39)씨는 지난 6일 밤 11시57분께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남구 방림지구대에 임의 동행했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귀가했는데, 조씨는 8분 뒤 다시 방림지구대를 찾아와 “왜 택시기사를 보냈느냐”며 소란을 피우고 A(46)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대응을 천명한 경찰은 조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는데 조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며 때늦은 후회.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처참한 내부 코리아셀배지 측이 지난 7일 선수 좌현 측 A데크 창을 통해 들어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세월호 내부는 벽체 패널과 철재 파이프, 목재 등의 구조물들이 선체에 매달려 있거나 어지럽게 무너져 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장과 바닥은 벽으로, 벽은 바닥으로 뒤바뀌었다. 물건도 쏟아져 내려 향후 수색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 “수색 종료시기는 9명 모두 수습할 때까지”

### 선체조사위원장 등 일문일답

#### 선체 절단은 고려 안해

#### 안전 위해 구멍뚫을 수도

세월호가 9일 오후 목포시항 철재부두로 완전히 올라왔다. 관심은 이제 미수습자 수색 일정과 이를 위한 사전 기초작업으로 모아진다. 다음은 김창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 류찬열 코리아셀배지 대표와의 일문일답.

-수색 시작 시기 및 종료 시점은?  
-김창준 위원장(이하 김)=수색 일단 구덩이 깊이가 깊어 최대한 빨리 개시할 것이나 특정하기 조심스럽다. 종료 시기는 9분 모두 수습할 때까지다.  
-류찬열 대표(이하 류)=선체 외부 세

척작업, 내부 소독 작업에 하루 이틀 소요된다. 이후 선체 내부 상태 확인 및 위험물 제거 작업 필요하다. 선체 내부 확인작업과 수색작업 병행할 수 있다. 우리가 방안을 세우면, 해수부, 선체조사위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수색 우선 순위는?  
-김=해저 잠수사 수색 마중 공간, 생존자 증언 및 세월호 내부 영상 토대로 미수습자 최후 목격지점, 가족 요구 사항 토대로 결정한다. 지도 형태로 수색 공간 우선순위 준비했으나 변동 가능성도 있어 공개 어렵다.  
-유해는 어떤 모습으로 추정하고 내부 수색방식은?  
-김=연한 배도 없는, 아주 단단한 유골만 남겨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점 유의해 수색한다.  
-류=선체 내부 지장물 들어올리는 과

정에서 유해가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선체 내부 물건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 아니다. 선체 내부를 육안으로 꼼꼼히 살피는 방법이다.

-수색 전 선체 내부 상태 확인은 어떻게.  
-류=내부에 소형 드론 띄우거나 내시경 카메라, 육안 조사 등으로 선체 내부를 살핀다. 수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치다. 수색 작업과 병행될 가능성 있다. 이날 오후 현재 대강 계획 잡혔고 유동적이다.  
-선체절단은 완전 배제됐다.  
-류=현재 수색을 위한 선체 절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작업자 안전 등을 이유로 추후 선체 절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수색 전 선체 내부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구멍을 뚫어 내부를 살필 수도 있다. /목포=김현영기자 kh@kwangju.co.kr

## 노란 리본 수만개...자승 스님도 귀환 기원

### 목포시항 추모 물결

세월호가 물로 완전히 올라온 9일, 휴일을 맞아 전국에서 목포시항을 찾아온 추모객들은 미수습자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선체 육상거치 작업 성공을 염원했다.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추모객들은 세월호가 보이는 항만 울타리에서 육상으로 이동하는 세월호를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다.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노란 리본에 9명의 미수습자 한 분 누락됨 없이 모

두 수습되기를’, ‘침몰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를’ 등 저마다의 소망을 적은 뒤 울타리에 묶었다. 이날 초부터 추모객들이 적어 울타리에 매달린 노란 리본 수만개에 달할 정도다. 목포시항 유가족 대기실 앞에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세월호 참사 3년 사진전 ‘잊을수 없는 그 날들’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은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준비한 것으로, 참사 당시 기울어진 세월호 모습, 참

사 직후 ‘당국의 구조 실패’를 비난하며 진도대교 방면으로 행진하는 모습, 팽목항에서 3년간의 기다림을 찍은 사진 등이 담겼다. 추모객들은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보며 다시 한 번 참혹함과 분노를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추모객 일부는 자원봉사자들이 노란 리본 고리와 노란 리본 스티커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7일 목포시항에서 미수습자 9명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소설가 김훈씨도 지난 7일 목포시항을 찾아 추모행렬에 동참하고 미수습자·희생자 가족을 위로했다. /목포=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물로 올라온 세월호...수색 작업 어떻게

#### 외부 세척·내부 소독 등 사전작업 후 드론 활용 상태 점검 11~12일께 선체 내부 수색 돌입...국과수 직원 현장 상주

세월호를 물로 완전히 올린 이유는 침몰원인 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와 함께 9인의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다. 선체 조사, 유실물 수습, 보존을 포함한 선체 처리 등 여러 과제가 있지만 9일 밤 세월호 선체 육상 거치작업이 종료된 이후 당면 과제는 선체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9명의 미수습자 수색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미수습자 수색, 언제 어디부터=해양수산부와 선체조사위 양측 모두 미수습자 수색 개시 일자를 특정하는 것을 꺼리지만 이르면 11~12일께 선체 내부 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밤사이 세월호를 항만 내 반점대 위에 올리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1~2일간 내부 수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선체 외부 세척, 내부 소독이 진행된다. 선체 외부 이물질들을 씻어내고 내부 소독을 마지면 수색에 앞서 선체 내부 점검을 한다. 내시경 카메라 또는 소형 드론을 활용해 수색 대상 공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선체 내부에 수색활동에 나설 작업자 안전을 해칠만한 물건이 매달려 있는지, 수색 대상 공간의 모습은 어떤지를 파악한다.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는 현재 선체 바닥이 벽으로, 벽은 바닥으로 돼 있어 수색 작업이 녹록지 않다. 수색 팀은 상황에 따라 선체에 추가로 구멍을 뚫어 그 안을 살피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최대한 빨리 수색에 나서 달라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청을 수용해 수색을 위한 사전 작업과 수색 작업을 병행할 뜻도 내비쳤다. 수색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공간은 ▲잠수사들의 수색이 미흡했던

공간 ▲생존자들이 전한 미수습자 최종 목격지점 ▲미수습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거론되고 있다. 선체조사위 측은 궁극적으로는 선체 내부 전체가 수색 대상 공간이며, 수색은 9명의 미수습자들이 수습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체 내부 수색 어떻게=정부와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유해가 단단한 뿔조각의 형태로 남겨져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육이나 약한 유골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선체 내부에 어지럽게 놓여있는 물건들을 들어올리면서 유골이 있는지 바닥을 살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경, 소방 등 40여명으로 수색팀을 꾸려 일일이 선체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쓸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도 현장에 상주시켜 뿔조각 등 유해 발견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해양수산부, 선체조사위는 선체를 절단하는 방안을 배제하고 있으나, 작업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작업 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체 절단을 통한 수색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앞서 선체 정리업체인 코리아셀배지 관계자 4명이 지난 7일 오전 선수 좌현 측 A데크 창을 통해 내부에 들어가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코리아셀배지 직원들이 1시간가량 24m를 진입해 살펴본 세월호 내부는 벽체 패널과 철재 파이프, 목재 등의 구조물 상당 부분이 선체에 매달려 있거나 어지럽게 무너져 내려 있어 앞으로의 선체 수색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목포=김현영기자kh@kwangju.co.kr

### 참사 1090일째 세월호 육상거치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매 추천물건

- ★ [숙박시설]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실버타운 요양원 적합부지 토지 3,613㎡ 건물 2,752.77㎡ 감정가 12억9천3백 ▶ 최저가 7억2천4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건축 최적합지 감정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정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동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 · 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 대 · 임야 52,299㎡ 평당5만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